

출장보고서

1. 출장 개요

□ 목적

- 1) 중국기업의 금융실태 조사
- 2) 2~3선도시의 부동산시장 현황
- 3) 한국의 중국진출 기업 실태 조사

□ 출장자: 강동수 선임연구위원 (이준엽 인하대 교수 동반)

□ 기간: 2011년 8월 17일~22일 (6일간)

○ 출장 일정

- * 8월 17일(수) 08:10 서울 출발, 8:40 칭다오 도착
14:00~20:00 칭다오시사회과학원 방문 및 만찬
- * 8월 18일(목) 09:00 청도 출발, 11:50 연대 도착
12:00~20:00 엔타이대학 방문(엔타이시정부, 엔타이발전
개발위 인사 동석), 오찬 및 만찬
- * 8월 19일(금) 09:00~11:00 엔타이 개발구 시찰
11:00 엔타이 출발, 14:00 칭다오 도착
15:30 재칭다오한인회 방문 및 만찬
- * 8월 20일(토) 12:00~15:00 희영티엔씨 면담
19:30 칭다오 출발, 21:10 항저우 도착
- * 8월 21일(일) 09:00~17:00 후저우 소재 기업 방문
- * 8월 22일(월) 11:00~12:20 저장대 양리우용교수 면담
15:00 항저우 출발, 16:00 서울 도착

2. 출장 활동 내역

□ 칭다오시사회과학원

○ 면담자

* Xu Wan Min 원장

* Tang Shan 비서장

* Bi Jian Wu 경제연구소 부소장

* Leng Jing 도시발전연구소 부소장

○ 면담내용

- 칭다오시사회과학원

* 산하에 경제, 지역, 정법, 사회, 문화, 역사 등 6개 연구소 보유. 이외에 한중문제, 중국문제, 노년문제, 과학기술 등 4개의 센터 보유

* 경제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여행, 방직 등을 연구 (연구원 약 60명)

- 중소기업

* 3, 4, 5, 6, 7: 중소기업의 세금, 재정수입, GDP, 수출, 고용의 비중이 각각 30%, 40%, 50%, 60%, 70%임을 의미

* 칭다오는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중상 이상의 수준(항저우가 최고)

* 칭다오의 핵심산업: 자동차, 석유, 방직, 가전, 의류, 자동차(자동차는 대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하청관계

* 자금난: 세계적인 문제이고 칭다오시도 예외가 아님. 은행은 중소기업에 보수적으로 접근. 담보를 요구하지만 중소기업은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함. 칭다오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차별적이지 않음(은행 주도). 충칭이 경우 춘진은행, 사모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공급이 발달하였으나, 산동성은 차입에 대하여 보수적인 성향을 보임. 주로 자기자금으로 사업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금난은 존재함. 정책적으로는 공업용지에 대한 담보를 허가하거나 채담보기관을 설립하여 자금난을 해소. 대출 이외에 VC육성(과기형기업), 직접금융(상장 등)이 있음. 초소형기업의 경우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산건전성 문제(보수적 태도)로 인하여 자금난을 해결하기가 근본적으로 곤란.

- * 2008년 금융위기는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컸음. 특히 한국계 중소기업에 대하여. 현재 기업의 어려움에 있어서 자금난보다는 임금, 환율 등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

- 부동산

- * 칭다오시는 2선도시에 해당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은 1선도시(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4개 도시)에와 유사. 2선도시는 10개성급도시와 5개 특별시
- * 부동산은 순환적 가격상승의 패턴을 보임. '92~'96년의 급상승 이후 '96년은 대출통제와 복지주택공급의 여파로 조정기를 거침. '97년 이후 세금우대정책으로 재상승. '04년까지 부동산 수요증가로 상승세 유지. 칭다오는 입지조건이 우수하여 부동산 개발상이 집중되었고 칭다오시도 부동산개발수입으로 인하여 개발에 관심. '05년의 경우 제조업 수입보다 부동산개발 수입이 많았음.
- * 현재 신규분양가는 9천위안/m²이고 해변은 6만위안/m² 수준. 높은 부동산가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보장임.
- *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연 6.4% 수준인데, 소득증가율이 10% 수준이므로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가격상승의 요인은 토지가격의 상승과 주택의 품질 제고임. 중앙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3~4선 도시는 가격상승시기는 아님. 현재 최고 약 6~7천/m² 수준임. 대규모 개발상은 1선도시에 대한 개발을 종료하고 2~3선도시로 이동하고 있음.
- * 부동산에 대한 금융규제: 1주택 LTV 70%, 2주택 LTV 50%, 3주택 이상 LTV 0%
- * 중국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여 주택시장이 붕괴되면 큰 문제임.

- 민간금융

- * 중국은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적 경제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
- * 자금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지만, 투자할 곳이 없음.
- * 민간금융에 대한 지역적 견해 차이가 존재. 북방의 경우 민간금융에 대한 수요가 적은 편. 개체호 정도에서 민간금융 수요가 있으나, 기

업의 수요는 많지 않음.

□ 엔타이대학

○ 면담자

- * Wang Shuyun 경영학원 원장
- * Li Xiaoguang 경영학원 부원장
- * Cui Zhanfeng 경영학원 교수
- * Zhang Guangwei 발전개혁위원회 과장(황삼각주 생태경제건설과)
- * Shi Jiayue 중국은행 엔타이분행 이코노미스트

○ 면담내용

- 시 개황

- * 엔타이 GDP는 4,358.5억위안으로 산동성 2위(지난보다 높음). 전체 중국의 20위권 도시(14개 개방도시 중 7위). 국가급 개발구 3개, 성급 개발구 11개.
- * 1인당 GDP 9,396달러, 652만명(전체), 180만명(도심)
- * GDP증가율: 10차 5개년 15.5%, 11차 14.95% (산동성 평균보다 2%p 높음). 소득가처분소득 23, 288위안(3800달러). 가처분소득증가율(도시 약 12%, 농촌 9%) < GDP증가율
- * 공업도시: 1, 2, 3차산업의 비중이 각각 7.6%, 58.9%, 34.2%임. 이중 공업이 53.1%임. 공업 중 중공업의 비중이 70% 이상. 공업화의 중기 단계로 고속성장 중. 4대 산업은 기계설비, IT, 식품가공, 화공.
- *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음(중국은 물론 산동성 평균보다도 낮음). 12차 계획 중에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40%까지 상승 목표(연간 1%씩)
- * 항구도시: 909Km의 해안선, 2.6만Km²의 해역 보유. 1812년에 이미 국제무역을 시작. 1급(국가급) 항만을 6개 보유. 70개국, 100개 항만 도시와 통항. 2010년 현재 총 교역량 437.8억달러, 수출 254.8억달러. 교역상대국 1위 한국, 2위 미국, 3위 일본.
- * 관광도시: 산, 바다, 강 모두 풍부. 우수관광도시. 와인축제. 환경보호 도시

- 부동산시장

- * 엔타이시는 14개 연안개발도시 중 하나이고 '98년 부동산개발 4개시범도시 중 하나임. '92년 주택개발면적이 2천만m²이었는데 현재는 28,000만m²임.
- * '92년 이전에는 계획경제적 성격의 개발을 실시하였으나 이후에는 안정적 발전을 이루고 있음.
- * '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은 적었는데, 이유는 투기수요가 적었기 때문. 실수요가 70% 이상으로 파악됨.
- * 엔타이시는 3선도시 중 핵심(2.5선도시). 언론에서 매월 70개도시 부동산가격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엔타이는 가격상승이 높은 지역임. 실제 부동산시장보다 언론의 관심은 더높은 편임. 해안가의 상승률이 높은 가운데, 연 5%의 상승률이 예상됨.
- * 전국 17개 전국적 부동산개발상이 엔타이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이중 7개는 시공 중임. 정부는 부동산개발상의 이윤을 분석하여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음.
- * 부동산 발전: 도시화와 관련. 2010년 도시화율 56.5%, 12차 중 도시화율 63% 목표. 도시내 인구변화는 없음.

- 부동산가격

- * 14개 행정구역으로 구성(전체 평균가 4,800위안/m²): 6개구 (평균 5800위안/m²), 7개 현급도시, 1개 현. 고신구, 래산구는 6,700위안/m², 해변은 8~9천위안/m². 최고는 1.6만위안/m²
- * 기존주택가는 신규주택가의 80% 선
- * 상승요인: ① 도시화, 공업화, ② hot money(외자, 타지역), ③ 20개 1급 개발상의 연태 투자, ④ 원자재가격 및 임금 상승, ⑤ 최근 공급주택이 품질 제고 및 브랜드 가치
- * 70개 도시는 중앙정부의 관심 대상. 주택구매제한은 43개 도시에 부과(산동성은 4개 도시). 2010년 중앙정부 1호문건, 산동성 5호문건은 부동산 가격 통제와 관련. 가격통제의 방법은 GDP(소득)증가율이 주택가상승률을 상회하도록. 저소득층에 저가주택(2700/m²) 공급.
- * 현재 주택가격/소득비율은 12~15배 수준. 세계적 평균은 3~5배.
- * 중국은 투자수단이 부재. 부동산투자는 실패한 적이 없음.

- * 부동산개발수입/재정수입: 현재 23%(타지역에 비하여 낮음. 무평구의 경우 1조 재정 중 3조가 토지매각 수입임). 지방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호조를 원함.

□ 재칭다오한인회

○ 면담자

- * 이강룡 사무국장
- * 송태권 덕세통상 대표
- * 이재향 청도BM화학유한공사 총경리
- * 조칠성 희영티엔씨 유한공사

○ 면담내용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영이 악화

- * 칭다오 소재 한국기업은 수출위주의 생산기업이 주류. 마케팅과 영업은 없고 생산만.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생산비용의 한계를 부딪힌 후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으로서 기술력보다는 단순 가공생산업체 중심임.
- * 칭다오 진출 이유: 초기 파격적인 투자혜택, 다수의 교포로 언어문제 해결(일본 기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사실상 자유방임에 가까운 기업활동 보장.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기업은 스피드경영으로 성공
- * 최대 7500여 기업이 있었으나, 현재는 4500~5000개 기업이 영업 중 (제조업, 무역업, 요식업 등)
- * 위기 이후 주문량이 급감.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이 동시에 발생. 기업 성과의 양극화 발생: 대기업 호조와 소기업 경영난
- * 기업의 야반도주: 법을 준수하면서 청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체불임금만 처리하면 중국정부도 기업의 실질적 도산을 용인하는 상황. 한국기업의 야반도주 문제도 심각하지만, 대만기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문제가 됨.

- 향후 방향

- * 대형기업의 경우 5~6년 전부터 내수시장 진출 및 제3국으로의 이동을 준비했음. 그러나,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이동한 기업 중 성공

한 사례는 많지 않음. 왜냐하면 이들 국가의 기업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

- * 3~4년 전부터 EBO 출현. 중국인 종업원에게 생산부문을 중심으로 사업부서 매각. 원 소유주인 한국인은 외부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인에게 위탁 생산을 시도.
- * 중소기업의 제조업은 어렵고 유통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임금이 300불 이상이면 제조업은 어려움. 부산의 신발공장이 중국으로 이동할 때 한국의 임금이 20만원 수준이었음. 이러한 점에서 보면, 칭다오에서 제조업은 이미 떠날 때가 지났음. 유통업은 인터넷(바이두)과 홈쇼핑을 중심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음. 한국기업의 장점은 철저한 사후관리, 디자인, 시장을 보는 안목 등임.
- * 중국에서 내수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한국기업은 도전정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봄.
- * 칭다오에 롯데마트가 2개였는데, 이중 청양에서 영업하던 매장은 폐쇄되었음. 이유는 중국 현지의 수요를 잘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중국인은 음식매장 위주로 쾌적성보다는 재래시장과 같은 분위기를 선호하는데, 청양소재 롯데마트는 지나치게 쾌적한, 한국형 매장이었음. 최근 까르푸도 재래시장 분위기로 전환하는 추세임.
- * 소형기업의 경우 자산이 없기 때문에(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된 기계류) 담보가치가 없고 따라서 외부차입이 어려움.
- * 칭다오에 진출한 기업은 1+1 기업이라고 보면 됨. 본국에 본사, 현지에 공장을 두고 transfer pricing을 통해 이윤을 창출. 따라서, 법인세 인상은 경영난 요인이 아님. transfer pricing으로 본국에서 이윤을 실현하였음.

- 정책건의

- * 중국경제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 특히, 경제활동 수치, 소비행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기업활동에 어려움. 사실 중국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control tower가 부재하여 자료가 산발적임.
- * 박람회 개최 및 참여 지원: 마케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
- * 청년층 인턴제도: 실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특히 농촌으로 근무를 시키면 며칠을 못 버티고 회사를 이탈하는 사례

가 많음. 수요와 선호가 불일치하는 사례임.

- * 비자문제 해결: 칭다오에 거주하는 외국인(한국인은 약 1.2만명 추산) 중 장기비자를 소유한 사람은 36명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적인 거주요건 마련이 어려운 상황.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해서 행정비용이 많고 불확실성도 존재함. 또한 실질적으로 불법취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체류를 위한 매년 비자연장은 생활을 불안정하게 함. 하지만, 한국인의 영주권 문제는 중국인의 한국에서 영주권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시각도 존재

□ 후저우 소재 중국기업 면담

○ 면담자

- * Tang Ye 후저우인거여행용품유한공사 사장 (종업원수 250명)
- * Xu Ganfang Kertice 사장 (종업원수 200명)
- * Wang Yijun 저장대학 연구생회 부주석

○ 면담내용

- 경영환경

- * 기업경영환경은 2008년 금융위기로 어려움, 2009년 정부의 확장적 정책으로 개선되었으나 2010년부터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함.
- * 기업경영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가 지나치게 빠르게 일어나고 정책수행이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임. 예를 들어, 최근의 대출통제는 은행의 기업신규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킴.
- * 중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2008년 이후 부정적인 영향이 많음.
 - 1) 융자난 가중: 2009년 개선되었으나 이후 대출통제로 인하여 은행차입이 매우 어려움.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함.
 - 2) 정책적 환경:
 - ① 중소기업정책
 - 중소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법, 환경법 등의 엄격 적용하여 노동자의 요구 증가, 최저임금 상승, 숙련 노동자를 구하지 어려운 채용난 등 기업경영난을 가중시킴.

② 시장환경

- 경기침체로 해외시장이 위축되어 수출형 기업의 경영난 가중
- 국내적으로는 과잉생산, 경쟁과열로 제품가격이 하락, 후저우인거여행용품유한공사의 제품도 10년 전에 비하여 50% 하락
- 반면에 원자재 가격, 임금 등 생산비는 상승하여 이윤율 감소, 또한 환율상승이 경영난을 가중시킴. 2008년 8.6 위안/달러, 현재 6.3 위안/달러

- 자금조달

- * 은행대출이 거의 없음. 대출이 있더라도 담보대출임. 최근에는 소액대출공사 설립으로 융자난 해결에 도움.
- * 대부분 중소기업이 자기자금, 친척 및 친구 다음으로 공급융을 이용함. 공급융이 막히는 경우 사금융에 의존하게 됨.

□ 저장대학

○ 면담자

- * 양리우용 금융학부 학부장

○ 면담내용

- 부동산금융

- * LTV 70%까지 은행대출은 별 무리가 없음. 주택구입자금 30%의 자금 출처를 알기 어렵지만 본인의 자금 이외에 상당한 규모의 친지자금 및 민간차입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 * 월 대출 이율은 통상 0.6% 수준임. 다만, 수수료로 2% 수준이 추가되고 있어서 연 이율은 10%에 근접.

- 기업대출

- * 기업대출의 경우 소위 “꺾기”의 관행이 있어서 지불준비율(2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예금을 요구받음. 예대금리차가 4%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대출비용은 더욱 증가
- * 은행에 대한 긴축정책 실시후 기업대출시 편법도 발생하고 있음. 즉, 은행이 기업에 1백만위안을 대출한 후 바로 예금을 시키고 다시 기업이 1백만위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업어음을 발행케 한 후,

은행이 동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을 취함. 이렇게 되면 은행은 지불준비율을 높이면서 고이자 여신을 취급할 수 있게 됨.

- *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하여 2009년의 금융여건은 매우 양호하였으나 2011년 통화정책의 긴축으로의 전환으로 자금사정이 tight해지고 있음. 민간기업의 자금난이 매우 어려워지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자금난보다는 매출감소에 의한 경영난이 더 심각한 상황. 결국 중국기업은 생산과잉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민간금융

- * 저장성은 민간금융이 비교적 발달하였음. 단기성 자금수요에 대하여 가계와 기업이 민간금융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편임. 특히, 은행의 대출 연장시 불연속이 발생하면 고금리의 민간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됨.
- * 민간금융의 금리는 통상 20%대임. 그러나,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 개발상은 월 6%에 해당하는 고금리의 민간금융을 이용하기도 함.